



#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song.co.kr E-mail : ejso835@hanmail.net

은송인(恩宋人)의 정신

충효(忠孝)의 정신  
고결(高潔)한 선비정신  
은덕불사(隱德不仕)의 정신  
송조목족(崇祖睦族)의 정신

■ 發行人/宋錫根 ■ 編輯人/宋在億 ■ 印刷人/宋富鎬 ■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新年辭〉

## 靑龍의 새해에 見利思義 精神으로 昇天하는 宗中이 되기를 바라며

大宗會長 宋錫根



송석근

親愛하는 30여만  
은송 일가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교토삼굴(狡兔三窟)  
한다는 癸卯年은 우  
리나라 석학들이 꿈  
은 건리망의(見利忘  
義)라는 사자성어를

등에 진 채, 세월의 노을을 타고 서녘  
하늘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영통한 여의주를 물고 대망  
의 甲辰年 청룡(靑龍) 해가 동녘 하늘  
에 오색의 서운(瑞雲)을 일으키며 솟  
아올랐습니다.

대망의 새해에 은송인 가가호호(家  
家戶戶)에 행운이 충만하고 만사여의  
형통하기를 성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봄 4월 29일(음 3월 10일) 관  
동에 모신 상사대 추원사 제향과, 진  
사공과 열부 안인 고흥류씨 선조비님  
의 세일사에 봄비가 나들이 길을 주춤  
거리게 하는 날씨인데도 경향 각지의  
종친들이 많이 참례하였고, 가을 11  
월 13일(음 10월 1일) 판암동 산소골  
에 모신 은송의 증시조 쌍청당 선조  
님 세일사에 변화되는 사회상에도 전  
국 각처에서 200여 종친들이 운집 참  
례하여 성황리에 제사를 봉행하였고,  
2023년도 정기총회를 원만히 이루도  
록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종친 여러  
분께 정중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용지를 품고 은송 종인  
여러분을 모시고 대종회 규칙을 성실  
히 준수하고 송조돈목 정신으로 숭선  
수범하여 은송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  
을 이룩하는데 신명을 다하고자 이 자  
리에 선다는 각오로, 첫째, 종규에 의  
한 종친의 중의(衆意)를 경청하여 밝  
고 바르게 중사를 운영한다.

둘째, 선조님 들이 물려주신 유,무형  
의 재산과 유물 등 귀중한 자산을 손  
괴, 손실되지 않도록 재산관리규정을  
만들어 투명한 자산관리를 한다.

셋째, 은송인의 제일 덕목인 송조돈  
목은 류조비님의 삼종지도(三從之道)  
정신과, 쌍청당 선조님의 은덕불사(隱  
德不仕) 정신을 바탕으로 은송 39개  
파의 화합과 이해로 하나되는 중중이  
되도록 한다.

넷째, 종인(宗人)간의 항고연고(行高  
年高)를 중시하여 형우제공(兄友弟恭)  
하는 가풍 운동을 전개하여 명문가의  
위상을 높인다.

다섯째, 관동묘려 지역과 판암동 산  
소골은 은송의 본(本)이 모셔져 있는  
성지로 쌍청회관을 조속히 명도받아  
은송인의 본원의 영화지로 정숙히 관  
리한다.

여섯째, 변화하는 시대 조류에 따라  
중중 운영실태 등을 은송이 변영 발전  
할 수 있는 길로 개선하는 최선을 다  
한다.

여섯 개의 기둥을 세우고 대종회를  
말아 오직 종인분들을 의지하고 한발  
별에 서서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좌  
고우면(左顧右盼)하는 사이에 한 해를  
보내고 돌아보니, 찬 바람만 계속산  
계곡을 타고 불어오고 있음을 자각하  
였습니다.

이제 인간사에 신령함을 상징하는  
용(龍)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계묘년  
의 부실을 살피고 고쳐, 훌륭하신 선  
조님들께서 물려주신 은송인의 고귀  
한 열로 촛불을 밝히는 해로 삼고 우  
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 도도히 흐르는 은진송씨 대종  
회의 대강에 거함(巨艦)을 띄우는 새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대종회가 우리 은송의 번

〈新年辭〉

## “새로운 시작”

派有司會 議長 兼 正郎公宗中 會長 宋聖鎬



송성호

존경하는 은송인  
가족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우리는 2023년을  
경험했고 이제 새로  
운 2024년을 시작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  
이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경제 불안과 변  
화무쌍한 기후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  
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  
한한 노력으로 극복하여 자랑스러운  
은송인의 후손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  
니다.

용은 예로부터 위엄 있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특히 청룡은 동쪽  
을 지키는 사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  
리 선조들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에게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답니  
다. 이번 신년사에는 꼭 알고 있어야  
할 집단공 부군과 호랑이의 길 안내를  
받은 유조비(쌍청당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집단공(宋明誼)께서는 두문동  
72현으로 태조가 조선을 세울 때 불사  
이군(不事二君: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  
하는 것)의 정신으로 이색, 정몽주 등  
과 조용히 두문동에 들어가 절의를 지  
켰고 후에 회덕으로 내려와 살던 곳이  
바로 유조비 산소 아래 은골(신촌동:토  
물)입니다.

집단공의 며느리이신 유조비께서는

영 발전을 견인하는 데는 은송인 모두  
가 손에 손잡고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편달을 보내주실 때 은송의 거함은 순  
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으면서, 대망의 신령스러운 龍의  
새해에 30여만 은송인 가슴 가슴에

부군인 진사공과 일찍이 사별하고 어  
린 아들(쌍청당(宋愼)부군)을 업고 개  
성에서 험난하고 머나먼 오백리 길을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남으로 향  
하던 중 어느 날 밤에는 호랑이를 만나  
길 안내를 받으면서 회덕의 시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자 이에 응하지 않고 어린 아들과 시  
부모님과 함께 살기를 간곡히 청하여  
살면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쌍청당 부군을 훌륭히 키워 벼슬(호분  
위부사정)을 하였으나 왕자의 난에 실  
망하여 벼슬을 버리고 회덕에 내려와  
박팽년, 박연 등과 교유하며 살면서 은  
덕불사(隱德不仕) 하였다.

지금 우리 은송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조선의 3대 열부인 유조비(柳祖妣:유  
씨 할머니를 유조비라 부름)께서 쌍청  
당을 훌륭히 키웠기 때문에, 후손들이  
대방, 용방, 경연관, 호당, 부조지전,  
위국순절 등 수 많은 급제자들과 충신  
들이 탄생하였고, 오늘에 와서는 30만  
명문거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족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여 선조님  
의 충효와 절의정신을 이어받아 각자  
의 자리에서 충실히 한다면 은송인의  
위상은 높아지고, 중중 발전에 이바지  
하여 후세에 길이길이 남게 될 거라 확  
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은송인에게 청룡처럼 위  
대하고 훌륭한 존재가 되어 남기를 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꿈이 용트림하고 종친 여러분 가정  
에 평강과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진년 새 아침에

謹賀新年



癸卯年 한 해 동안 보내주신 聲援과 指導鞭撻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甲辰年 새해는 宗親 여러분들의  
尊體 大安하심과 家內에 祥瑞로움이 充滿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所願成就하시기를 祈願합니다.

甲辰年 元旦 恩津宋氏 大宗會 任職員 一同

顧問 清谷 宋教辰  
" 日耕 宋範燮  
" 愚公 宋俊彬  
" 松江 宋東鎬  
" 省齋 宋泰永  
" 臥松 宋熙遠

大宗會長 信菴 宋錫根  
派有司會議長 錄山 宋聖鎬  
派有司會副議長 仁庵 宋三德  
監事 春谷 宋龍淳  
監事 德岩 宋在茂  
監事 宋信憲

常務有司 一同  
褒賞審査委員 一同  
獎學委員 一同  
文化行事委員 一同  
宗報編輯委員 一同

典禮有司 宋九永  
總務有司 宋寅集  
掌財有司 宋寅曠



지평공 세일사 봉행

주산동 지평공 묘전, 70여 종인 참제

지평공 세일사를 2023년 11월 22 일(음 10월 10일) 11시 대전광역시 동구 주산동 지평공 묘전에서 대종회 주관으로 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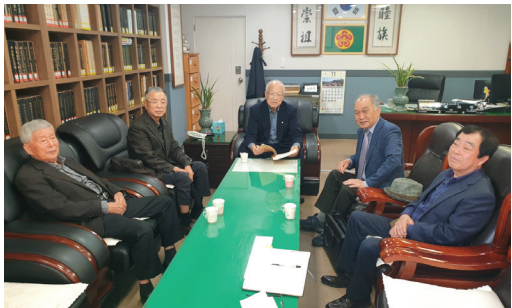
겨울 답지않게 온화한 날씨속에 70여명의 종인이 참석하여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지평공 재실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답소하며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 지평공 세일사

삼기당공파 족보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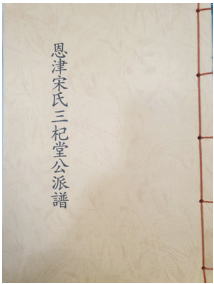
▲ 삼기당공파 임원진 대종회 방문

2023년 11월 2일 삼기당공파 송형현 공사원, 송재원 파유사와 임원들이 대종회를 방문하여 삼기당공파에서 발간한 파족보와 USB에 담긴 파족보를 대종회에 기증하였다.

2020년 8월 20일 종보에 삼기당공파 파보발간공고를 낸지 3년3개월여 만이다. 그간 파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노력한 송형현 공사원의 임원진의

이날 송형현 공사원의 임원들이 대종회발전기금으로 30만원을 헌성하였다.

노고를 치하한다. 대종회에서는 삼기당공 파보(USB)를 은진송씨 대종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였으며 삼기당공파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파족보를 발간하게 되면서 파악하게 된 종인명단을 대종회에 제출하여 대종회에서는 종보를 구독하지 않던 종인에게도 종보를 보내고 있다.



▲ 삼기당공파 족보

<공사원 및 파유사 변경>

파명	날짜	내용
모은공파	2023.11.21	공사원 송재경(宋在瓏)을 송덕호(宋德鎬)로 변경
동파공파	2023.12.01.	공사원 송영대(宋永大)를 송재무(宋在茂)로 변경
송창공파	2023.12.05.	파유사 송인경(宋寅庚)을 송만영(宋萬永)으로 변경

牧使公, 楊根公 선조님 세일사 엄숙히 봉행

은진송씨 牧使(判校)公 宗中에서 2023년 계묘년, 목사공(遙年), 양근공(汝霖)세일사 준비를 목사공종중 전 임직원이 정성스럽고 정갈스럽게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당일 겨울비가 내려 천막을 설치한 목사공 재실(沙山墳菴)에서 대종손(송교진)을 비롯한 대종회장(송석근), 전임 대종회장(송태영), 대종회 파유사회의장(송성호), 원로 종중 분 등 90여분의 많은 분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다.

아 봉행하였다.

先祖님의 세일사를 마친 후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목사공종중회장(송서호)은 인사말씀에서 거리의 원근과 날씨가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세일사에 참제 하신분과 종중을 위해 수고하신 전 종원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되어 종무사항을 간결하게 보고하고, 총회를 마쳤다.

이어 목사공종중 세일사에 12년(2011~2022)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참제 하신 10여분의 종원님께 감사함의 표시로 조그마한 선물(고급

이날 牧使公 세일사에서 직일을 맡은 송철기(쌍계당공파)공사원으로 부터 목사공 선조님의 행장 설명이 있은 후, 송하영(호군공파 종중) 집례의 창홀로 세일사가 시작되어 초헌에



▲ 목사공 세일사

송용순(동춘당문정공파), 아헌 송인규(호군공파), 종헌에 송광섭(송창공파)현관이 봉행하였으며 대축에 송공빈(판관공파), 집사에는 송치구(첨사공파)파유사, 송종영(송월재공파)공사원이 수고해 주셨다.

이어서 楊根公 세일사는 직일에 송진팔(사우당효정공파)공사원, 집례 송석주(삼가공파종중), 초헌에 대종손(송교진), 아헌 송덕영(호군공파)공사원, 종헌 송인원(취옹당공파)공사원, 대축에 송구영(송창공파)공사원, 집사는 송종영,송치구 종원이 맡

등 산스틱(지팡이), 보온물통세트)을 드리 받을 때 마다 종원님께서 많은 박수갈채로 화답하였으며, 참석하신 종원님

께서도 앞으로 세일사는 물론, 종중 모든 행사에 꼭 참석하실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어 주위를 흐뭇하게 하였다.

또한, 세일사에 대종회(회장 송석근)와 사우당효정공파종중(공사원 송진팔)에서 보내주신 제주(祭酒)와 정랑공종중(회장 송성호)에서 보내주신 헌성금(獻誠金)에 감사드리며, 세일사 준비에 최선을 다한 전 임직원, 특히 송화영(장재유사, 삼가공파) 내, 외의 진설에 수고가 많았음을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끝맺음하였다. <자료제공 : 목사공종중 송기영 총무유사>

謹賀新年  
所願成就



癸卯年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심과 보내주신 많은 協助에 感謝드리오며, 甲辰年 새해에도 貴宅에 瑞氣滿堂하시고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늘 함께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甲辰年 元旦 恩津宋氏 各派 公司員 一同

延安公派	宋奇善	忠順衛公派	宋鎬德	判官公派	宋斗植	牛峰公派	宋永俊
監役公派	宋春永	進士公派	宋錫煥	秋坡公派	宋桂鏞	圭庵文忠公派	宋在雄
霽月堂文僖公派	宋寅茂	通政公派	宋錫燦	野隱忠顯公派	宋重鎬	三杞堂公派	宋亨憲
護軍公派	宋德永	松窓公派	宋九永	氷壺公派	宋在殷	東波公派	宋在茂
高敵公派	宋泰永	四友堂孝貞公派	宋鎭适	負喧堂公派	宋在鋼	潛夫公派	宋正憲
安素堂公派	宋宇永	僉使公派	宋瑞鎬	珍山公派	宋久鎬	後庵公派	宋珠永
三嘉公派	宋福永	清風公派	宋百淳	尤庵文正公派	宋安鎬	主簿公派	宋晃憲
將仕郎公派	宋翰燮	慈山公派	宋利永	長城公派	宋濬鎬	將仕郎公派	宋秉洙
松月齋公派	宋鐘永	雙谿堂公派	宋哲基	茂朱公派	宋在烈	榮川公派	宋永植
醉翁堂公派	宋寅元	同春堂文正公派	宋龍淳	牟隱公派	宋德鎬		



〈新年辭〉

새해에는 이사동을 전통유교마을로

牧使公宗中 會長 宋 瑞 鎬



송서호

甲辰年 새해 아침에 존경하옵는 전국에 30만 우리 종원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안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바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역병으로 2~3년간 우리 주위에서도 일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진송씨 목사공중증은 선조님의 음덕과 전국 30만의 종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광역시(이장우 시장)에서 동구 이사동 지역에 전통 유교마을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전통의례관 착공을 시작으로부터 지연됨이 없이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어 2024년 5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는바, 이사동 지역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함께 이루어 온 양반가인 우리 은진송씨의 독특한 문중문화가 잘 어우러져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문중문화가 오늘날까지 잘 전수되어 숨쉬고 있는 곳으로, 살아있는 박물관을 연상하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 은진송씨 단일 혈통의 1,000여기 분묘가 자연 친화적으로 잘 계장되어 있으며, 제반 석물들이 웅장하게 치장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단일 혈통의 집장지로서, 묘소에 설치되어 있는 비석의 주인들이나 비문을 지은 분들, 비문의 글씨를 쓴 분들 모두가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선도 하였던 분들이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지정문화재로 재실 2곳(월송재,추원재), 묘소 3곳(송요년, 송응서,송남수)으로 당대의 유명인사들께서(동춘,우암,입제,성현,송구용, 김상헌,김집,송응형,송남수 등) 비문을 지었고, 명필들께서 비문을 썼기 때문에 금석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은진송씨 3대시인(송담 송남수, 금암 송몽인, 수재 송희갑)의 묘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문집은 시를 연구하고 있는 많은 인문학자들의 교육자료가 되고 있는 곳으로 16개 재실과 5개 당이 연계됨으로서 전통 유교마을 조성에 일조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목사공 중증에서는 종종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대전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은송의 문화재, 문화유적 순례행사(4세 평산공(사민) 산소 참배 행사를 시작으로 유조비 재실, 쌍청당 비각, 송담 비각, 사우당, 쌍청당, 동춘당 등을 답사하는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목사공, 양근공 산소 오름길 정화작업을 연차적으로 연산홍, 맥문동을 식재하는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묘역 및 재실 가꾸기에 매년 열심히 하고 있는바 전국 30만 종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재삼 기원드립니다.

2024. 1.

〈新年辭〉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정의로운 삶을...

司直公宗中 會長 宋 琦 洙



송기수

癸卯年을 보내고 희망찬 靑龍의 氣象, 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묘년 한해는 천재지변도 많았고, 그로 인한 인명과 산재 폐해도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삼권분립도 의심스러울 만큼 흔들렸던, 갈등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계묘년을 보내고 갑진년의 원단에서 충선을 앞두고 또 정치적 격렬의 시점에 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우리 선조님들의 삶을 회상해 보면 권력과 부귀에 아부하지 않고 정의와 명분에 집착하여 고고한 선비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 고고한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후손들에게 이어져 나아 갈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미움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마음, 정을 주고 봉사하며 노력하면 한 가문을 부흥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소박한 생각들이 변명과 축복의 기틀이 됨을 알아야 하겠고 그 마음에 호응을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억지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받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은 억지가 없고 순리에 따라 흘러 갑니다. 물의 발원지인 작은 웅달샘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웅덩이가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만족을 느끼게 하고, 바위 같은 저항이 있으면 어루만지며 돌아서 가는 여유로움을 가르쳐 주고 가면서 다른 물과 만나면 합류하여 어울림을 부동켜 안고, 이리하여 도량물은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은 강물이 되고 강물은 바다에 머물러 사해로 바다 밑의 모든

생명체를 보듬어 주고, 수증기로 승화되어 생명수를 지상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영원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옛, 성현께서는 정치도 우리의 삶도 물에서 배워야 한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 물과 같은 마음이 변영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새해에도 송조돈목崇祖敦睦 정신과 孝의 중요함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만사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제고하면서, 조상님들을 지성으로 모시고 선조님들께서 물려주신 교훈과 유적, 유물, 유산을 잘 받들어 지키고 보존 관리하여 자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도록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현명하신 종친 여러분!

우리는 밀려들고 있는 사회 섭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밀려들고 있는 세상 섭리에 적응하는 새로운 지혜를 찾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전해오는 풍수적 관점에서 볼 때 동기감응同氣感應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각자 다른 것처럼 지리적 요건도 천차만별이라 생각합니다. 인생 길흉화복이 여기에 근원을 두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이에 조상의 묘소(陰宅)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조상의 얼을 잘 받들어 성묘하고, 관리를 한 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새삼 다짐해보면서 이상, 외람된 말씀 너그러이 양해 바라옵고, 종친님들의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신년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甲辰年 元旦

謹賀新年



謹賀新年



癸卯年 한 해 동안 宗事に 많은 協助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甚深한 感謝를 드리며, 甲辰年 새해에도 변함없는 聲援을 부탁드립니다 宗親 여러분의 家庭마다 幸運이 가득하시고 모든 일에 所願成就하시기를 祈願합니다. 甲辰年 元旦 恩津宋氏 大宗會 派有司 一同

延監霽護高安三將松醉忠  
安役文軍敵素嘉  
公僖公敵堂公  
派公派公派公  
派公派公派公

宋奇善 宋佐永 宋元變 宋夏永 宋九永 宋宇永 宋錫哲 宋又永 宋翰變 宋福永 宋寅德

忠順衛公派 進士政窓公派 四友堂孝貞公派 僉使公派 清風公派 慈谿堂公派 同春堂文正公派

宋鎬範 宋錫煥 宋繁永 宋寅鳳 宋萬永 宋鎮鴻 宋鎮适 宋瑞鎬 宋百淳 宋利永 宋哲基 宋龍淳

同春堂文正公派 判官公派 秋坡公派 野隱忠顯公派 氷壺公派 負喧堂公派 珍山公派 尤庵文正公派 長城公派 茂朱公派

宋萬淳 宋斗植 宋熙璘 宋泰鏞 宋文鎬 宋龍鎬 宋在綱 宋京鎬 宋永文 宋基鎬 宋永來 宋旺鎬

牟牛圭庵文忠公派 三杞堂公派 東潛後主將榮 隱峰公派 波夫庵簿仕郎公派

宋在東 宋道憲 宋聖鎬 宋元茂 宋秉茂 宋珠永 宋信憲 宋弼鎬 宋偉植



## 우암 송시열 탄신416주년 송모제

•일 시 : 2023. 10. 20(금) 11:00~

•장 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구룡촌)

•참석인원 : 50명(지역주민 및 종원)

문정공 우암 유희비는 충북 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는 바, “아홉 개의 주렁이 마을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아홉 마리의 용이 마을을 향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암이 태어나기에 앞서 산관씨인 어머니는 명월주를 삼키는 꿈을 꾸고 임신 하였고, 아버지 수옹(송갑조)은 공자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오는 꿈을 꾸셨다 한다.

우암(尤庵) 문정공은 구룡촌 외가에서 태어나셨고 본관은 은진(恩津)이며, 아명은 성퇴(聖賚), 자는 영보, 호는 우

암 또는 우재(尤齋)이다.

26세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懷德, 宋村, 飛來洞, 蘇堤洞 등지로 옮겨가며 살았으므로 세칭 懷德儒로 알려져 있다. 사계 金長生선생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우시고 사계께서 돌아가시자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金集) 선생에게 학문을 배우셨고 율곡의 학통을 계승하고 기호학파의 중장이 되었다. 인조때부터 숙종에 이르는 4조에 걸치는 서인·노론의 대표로서 정계에서 크게 활약하였으며 뛰어난 학식과 인품으로 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27세때 생원시에서 一陰一陽之謂道를 논술하여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명성이 알려졌고 2년뒤인 1735년에 봉림대군(후일의 孝宗)의 사부로 임



▲ 송모제

명되었다.

병자호란으로 왕이 치욕을 당하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자 우암은 추풍령 황간으로 낙향하여 10여년간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에만 몰두하다가 효종의 즉위와 함께 척화파 및 재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세자시강원진선, 사헌부장령 등의 관직을 내리자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으나 곧 사직하였다.

그는 특히 존주대의(尊周大義)와 복수설치(復讐雪恥)를 역설한 것이 효종의 북벌의지와 부합하여 장차 북벌계획의 핵심인물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관직을 사직하시고 재야에 은거해 있는 동안에도 선왕의 위광과 사림의 중망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74년 효종비의 상으로 제2차 갑인 예송에서 그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었다가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고 뒤에 장기(長鬢)·거제 등지로 이배되었다.

유배 기간 중에도 남인들의 가증 처벌 주장이 일어나 한때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유배에서 풀려나 영증추 부사겸영경연사로 임명되었고 봉조하(奉朝賀)의 영예를 받았다. 원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로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당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하자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로 유배되었고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게 되었다.

후에 서인이 정권을 잡자 그의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인정되어 관작이 회복되고 제관을 보내어 致祭했다.

숙종때 수원, 정읍, 충주 등지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졌고 다음해 시장(謚狀)없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우암의 문집으로는, 숙종 43(1717년)에 왕명으로 교서관에서 처음으로 편집 167권을 첩찰자로 간행한 『우암집』이 있으며 또 정조의 명에 따라 (1787년) 215권 102책의 『송자대전』이 있다. 우암의 영정은 국보 239호로 지정되어 있어 후손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자료제공 : 송봉희 우암문정공파 총무>

## 서원 추향제 참석 현황(우암 문정공파)

- 1.도봉서원 추향제【2023. 10. 24(화) 11:00~】

•장 소 : 서울 도봉구 도봉동

•참석인원 : 60명(우암 문정공파 후손 12명)

•특기사항 : 선조6년(1573)에 조광조를 제향하기 위하여 창건되어 “도봉”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1696년 우암을 추향하였고 영조 51년에 어필사액을 받은 서원임
2. 송현서원 추향제【2023. 10. 26(목) 11:00~】

•장 소 : 대전 유성구 원촌동

•참석인원 : 50여명(우암 문정공파 후손 3명)

•특기사항 : 처음에는 김정, 정광필, 송인수를 배향하는 사우로 용두산 기슭(현재 중구 용두동 일원으로 추정)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때 소실 되었다가 다시 이진하여 삼현서원이라 개칭하였고, 유생들이 조정에 청원하여 호서지역 최초로 송현서원이라 사액을 받았다.
3. 고암서원 추향제【2023. 10. 26(목) 11:00~】

•장 소 : 정읍시 충정로 193

•참석인원 : (우암 문정공파 후손 4명)

•특기사항 : 1695년 창건되어 고암이라는 사액을 받았으며 정조10년(1786)에 우암의 수제자인 수암선생을 추가 배향하였고 수명지에 유희비각이 남아 있다. 우암서거 300주기 추모행사에서 여러 유림들의 발의로 복원되었다.
4. 화산서원 추향제【2023. 10. 26(목) 11:00~】

•장 소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참석인원 : 40여명(우암 문정공파 후손 4명)

•특기사항 : 효종5년(1654)에 창건했으며 사계선생이 이곳에 익산군수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훗날 지방사람들이 추모하여 이 서원을 세웠다. 우암은 이 서원을 창건할 때 상량문을 지으셨고 사계선생의 봉안 축문을 지으신 바 있으며 숙종21년(1695)에 추가로 배향되었다.



▲ 도봉서원 추향제



▲ 고암서원 향사봉행

5. 임장서원 추향제【2023. 10. 29(일) 11:00~】

•장 소 : 경기 연천

•참석인원 : 50명(우암 문정공파 후손 2명)

•특기사항 : 주자를 제향하기 위하여 창건한 서원으로 창건과 함께 사액을 받았으며 1713년 임장서원으로 개칭되었다. 순조1년(1801)에 우암을 추향하였다. 정조가 주자와 우암을 함께 비교한 兩賢傳心錄이 보관된 곳으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6. 죽림서원 추향제【2023. 10. 29(일) 11:00~】

•장 소 : 논산 강경 황산리

•참석인원 : 30명(우암 문정공파 후손 3명)


•특기사항 : 김장생의 학맥을 이은 송시열이 현종4년(1663)에 팔괘정을 지으면서 창살무늬를 八卦로 꾸몄고 그 옆에 위치한 황산서원은 지금의 죽림서원이다. 수해(침수)피해로 폐허한 서원을 2026년 창건 400주년을 맞이하여 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7. 대로사 추향제【2023. 10. 29(일) 11:00~】

•장 소 : 여주시 하동 200-1

•참석인원 : 50명(우암 문정공파 후손 11명)

•특기사항 : 정조9년(1785)에 왕명에 의해 송시열을 제향하기 위하여 세운 사우 우암에 대한 존칭이 大老의 명칭을 붙여 “대로사”라 하였으며 여주에 머물 때마다 영릉(효종의 능)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후진들에게 북벌의 대의를 주장 하였다. 고종때 전국의 사원과 사우에 대한 철취령이 내려졌을 적에 전국에 우암을 제향했던 사우가 44개소가 헐렸으나 오직 이 대로사만은 江漢祠로 이름을 바꾸어 남게되었다. <자료제공 : 송봉희 우암문정공파 총무>

## 우암문정공파 후손 송현아(宋賢雅) 변호사 라이징 스타 선정



송현아

은진송씨 우암문정공파 옥과종중 후손인 송현아 변호사가 2023년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실시한 전국의 변호사 평가에서 의료 바이오 분야의 라이징스타로 선정되었다. 송현아 변호사는 2012년 법무법인(유) 광장(서울 중구 남대문로 63)에 합류한 이래 기업일반,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헬스케어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및 M&A 관련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2023년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 평가  
※ ( ) 안은 법무법인

라이징스타			
금융	박용진(세종)	이화석(울산)	허은진(김앤장)
플랫폼·유통	김남훈(위어드바이즈)	장종(지평)	홍석범(화우)
부동산·건설	김상우(김앤장)	박수현(화우)	유재성(광장)
의료·바이오	송현아(광장)	안효준(태평양)	이환범(김앤장)
기업법회	김남수(김앤장)	임상준(울산)	최갑진(광장)

※무순위 선정으로 성명은 가나다순, 20개 분야 중 10개 분야는 12월 6일자 (상)편 지면에 공개했습니다.



# 무령왕릉이 있는 백제 고분군을 왜 宋山里 고분군이라 하는가?

以堂 宋成彬

## 1.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송산리 고분군

충청남도 공주에 가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송산리 고분군이 있다. 고분군 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백제 무령왕릉이 있다.

1971년 7월 8일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 제7호분)이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발견으로 주인공이 백제의 제25대 왕 무령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제까지 자료가 없어 미궁에 빠진 백제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관련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무령왕릉의 발견은 완전히 우연이다. 1971년 7월 송산리 고분군 6호분에 유입수를 막기 위한 배수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에 삽 끝에 걸린 벽돌로 인해 세장 밖에 공개된 무령왕릉은 어떤 이유로 그때까지 도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무덤 양식 때문이다. 송산리의 다섯 개 무덤은 굴식 돌방무덤인데 반해, 6호분과 7호분(무령왕릉)만 벽돌식 무덤 형태다. 출입구가 막혀 있다고 하여도 도굴꾼의 검은 손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이 무덤은 1442년

동안 묻혀 있던 백제 왕릉이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두 번째, 동춘당 종가택에서 전 해 오는



▲ 공주송산리고분군

송영진의 이야기다. 1927년 공주고보로 전입한 교사 가루베 지온이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공주의 무려 738기에 이르는 백제 고분을 발굴 연구하여, 공주 지역 향토사 정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1933년, 송산리 6호분 도굴 사건을 계기로 총독부는 가루베의 무자비한 발굴에 제동을 걸었고, 6호분 옆의 주변 땅은 송준길 선생의 큰 손자 병문의 산소 주변이라 종가택에서 기부하지 않고 밭을 일구어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왕릉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이 가도 영향력 있는 가문의 땅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어 도굴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2. 「세계유산 송산리(宋山里) 고분군」의 원 소유는 동춘당 문중의 선산

이었다.

국가 사적 제13호로, 능역(陵域)이 송산리 고분(백제 무령왕릉과 왕릉원), 소재지가 공주시 웅진동(옛 지명 송산리) 319-1 외로 되어 있다.

무령왕릉 소재지가 송산리(宋山里)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 왜 宋山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문중 묘역을 답사할 때, 묘역에 가면 송산소골, 김산소골, 박산소골, 큰 산소골 등 익숙한 지명이 나온다.

충남도청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춘강 김영한 선생의 기록을 보면,

… 공주 송산리 묘역의 기록을 살펴 다가, 왜 국가사적지가 송산리 고분군으로 되었나? 의심하며 추적했다. 추적하다 보니, 이 산이 동춘당 송준길 선생 종가택의 선산임을 알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에서 왕릉이 발견되자 일본 경찰이 종손을 수차 호출해서 갖은 위협과 공갈로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고 기부하게 하여 이 산을 빼앗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서류가 1990년 당시 종손택에 보관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놀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고분군(왕릉)이 전 소유인 송씨택 산이므로 그대로 송산리 고분이라 칭한 것이다.…(『季刊 恩津宋氏宗報』 제12호, 1991.02.28.)

무령왕릉 바로 밑에 동춘 선생 손자 송병문 산소가 있는 400여 평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하였다. 후일 국가에서 이 산소를 천장하고 산

소 터를 헌납하라고, 계속 종중에 압력을 넣었다. 2000년대에도 도유사에게 압력을 넣어 헌납을 종용했으나 도유사는 기부 여부(與否)를 필자에게 상의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산소를 천장한다면 동춘당 문중의 문화유적이 하나 사라지게 되고, 송산리 고분군의 송산리(宋山里)가 가지는, 스토리텔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천장해서는 안 된다. 고 반대하여, 국가에 헌납하지 않고 산소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 3. 송산리 고분군이 동춘당 문중의 선영이 된 사연

이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향교 구터와 관련이 있다. 송준길과 아들 송광식의 묘소가 있었던, 이곳 송준길 묘역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송준길이 50세 되던 효종 6(1655)년에, 배위 정씨 부인이 효종 6년(1655)에 하세하자, 공주 동쪽 금강 상류 명탄리(세종시 호탄리 추정)에 모시게 된다.

나. 송준길 자제 정랑 송광식은 송준길이 59세 되던 현종 5년(1664)에 하세하자, 공주 유곡(송산리)에 산소를 쓰게 된다. 그러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與忠賢院儒(이유태가 송준길 자제 광식의 산소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하여, 공주향교와 충현서원 유생들이 제동을 걸자 충현서원 유생들을 설득하는 편지)에 의하면,

1664년(현종 6) 8월 16일 공주향교의 이견을 둘러싼 향교 옛터의 사용 문제를 놓고 여기에 송준길의 아들 송광식의 묘소가 문제 되자, 이유태는 공주향교와 충현서원 유생에게 그 옳은 뜻에 따라 송광식의 묘소를 쓰도록 허락하여 주기를 간곡히 회유하는 편지를 쓰게 된다. 송준길과 송광식, 이유태와 그 자제 이용과 끈끈한 인간적인 정리가 흠뻑 묻어나는 내용의 편지다. 송광식이 갑진년(1664) 7월 16일 하세하여 산소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유태가 유생들을 설득하여 승낙받아, 10월 26일 공주향교 구터에 장례를 모시게 된다.

내용은 애초에 송준길의 자제(광식)가 어머니 산소를 천장하려고 공주에 땅을(송산소) 준비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하세했다. 송준길이 그 자제 산소를 공주에 쓰려고 하니, 그곳 유림이 반대하여 일이 난관에 봉착되었다. 공주향교 사림들은 학교 뒷산에 산소를 쓰면 인물이 안 난다고 하며 거부했다. 그러나 이유태는 산소를 쓰면 송준길이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간접적인 교육

이 된다. 향교 서원 유생들에게 그 산을 송준길 가에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강력히 권유했다.

다. 1672년 송준길이 하세하자, 현종 14년(1673)에 연기 죽안에 산소를 썼다.

라. 4년 후인 숙종 2년(1676)에 회덕 흥룡리로, 정씨 부인과 합폄으로 모셨다.

마. 송준길 손자 병문이 숙종 8년(1682)에 하세하자, 유곡 정랑 광식 묘역 조하로 산소를 쓰게 된다.

바. 또한 송광식의 산소는 숙종 9년(1683) 3월 19일에 조씨 부인이 하세하자, 회덕 흥룡리 부모 산소 조하로 천장 합폄하였다.

사. 6년 후 숙종 15년(1689)에 송준길 산소는 술인이 흥룡 묘지를 또 헐어야 한다고 하여, 아들이 준비해두었던 공주 유곡으로 천장했다.

아. 11년 후 숙종 26년(1700) 10월 21일 진잠 사점동(오늘날의 대전 서구 원정동)으로 다시 천장하고, 그해 겨울 아들 광식의 산소도 사점동으로 천장함으로써 오늘날 송준길 묘역이 형성되었다.

송산리 고분군, 즉 공주 유곡에는 송준길 자제 송광식의 산소를 썼고, 다음에 송준길의 산소를 썼다. 송준길이 아들의 고심을 생각해서 본인 산소를 쓰려고 했다. 공주 송산리는 명승고적이다. 송산소는 유래가 눈물겨우면서 깊고 멀기 때문에 지역의 이름이 되었다. 즉 송준길의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유곡이 송산리로 이름이 바뀐 유서 깊은 곳이다. 현재 무령왕릉 밑에는 큰손자 병문의 산소가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송산리 고분군은 동춘당의 묘역이 있었던 곳이기에 宋山里가 되었다.

## 2024 갑진년 대종회 달력 제작·배부

대종회에서는 2022년부터 제작하여 배부하여온 “은진송씨 대종회” 달력을 2024년도에도 제작하였다. 2022년도에 800부를 제작·배부한 결과 종원들의 호응이 좋았으나 부수가 부족하여 2023년도에는 1,000부에 이어 금년에는 1,2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신년 달력에는 월별로 은송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실었다.

표지에는 은진송씨 유래비, 1월 추원사(상4대 사당), 2월 회덕 쌍청당, 3월 관동묘려(류조비 재실), 4월 류조비 세일사 진설, 5월 회덕 동춘당, 6월 송유 묘표, 송갑조 신도비와 후기비, 7월 고흥류씨 정려각 및 비, 8월 주산병사(지평공 재실), 9월 은진송씨

대종가, 10월 남간정사, 11월 사산분암(목사공 재실), 12월 쌍청회관을 담았으며, 매월 주요행사란에 대종회의 행사와 세일사 일정을 담았다.

달력은 각 파종중과 지역 종친회에 5개~20개씩을 배부하였으며, 임원(고문, 상무유사, 각위원 회(포상심사, 장학, 문화행사, 종보편집 위원), 파유사 및 집행부, 종중건물 입주업체, 고액 헌성금 기부자 등에게 개별 배부완료하였다.





##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5회)

###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 XII. 돈암서원(遯巖書院)

##### 1. 현황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 문화재지정 : 국가지정 사적 제383호
- 창건연대 : 1634년 (인조12)
- 사액연도 : 1659년(효종10), 1660년(숙종1)
- 배향인물 : 김장생(金長生) 김집(金集) 송준길(宋浚吉) 송시열(宋時烈)
- 향사일 : 음 2월 8월 中丁日

##### 2. 연혁

- 1634년(인조12)에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임리 249번지에 창건하고 사계 김장생의 위패를 봉안함
- 1658년(효종9)에 신독재 김집을 추배 하였고
- 1659년(효종10)에 사액되고 다음 해인 1660년(숙종1)에 동일 액호로 사액 되었음
- 1688년(숙종14)에 동춘당 송준길
- 1695년(숙종21)에 우암 송시열을 추배함
- 1871년(고종8) 전국 서원 철폐령에 서도 보존 되었음
- 1887년(고종18)에 서원의 지대가 낮아 홍수 때에는 뜰앞까지 물이 차므로 높은 지대인 현 위치로 이전 하였다.
- 1926년 장판각을 짓고 서책과 판각을 보관하고
- 1956년 양성당을 증건하였으며
- 1971년 응도당을 현 위치로 이전 하였다.
- 2019년에 우리나라 9개 서원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등재되어 방문객이 년 3만 명이 넘고 있다.

서원의 발의가 나온 것은 사계 김장생 타계 직후 여러 유사(有司)가 주도하고 충청지방 각 지역 사족들인 현직 관료 6명, 전직 관원 9명, 유학 4명, 생원 4명들이 호응하여 이들이 서원 창건의



▲ 돈암서원 전경 (사적 제383호)

실무진이 있었고 유사들은 재원을 조달하고 공주목 청주목 홍주목 산하의 20여 지방 유림들이 재정

적 지원을 하였다. 이 서원은 1659년(효종10)에 이어 1660년(현종1)에 재차 사액을 받았다. 재사액을 그것도 1년 만에 동일 액호(額號)로 받은 것은 드문 일로 이때 익산 유림의 상소에 대하여 조정에서 이미 선조인 효종때 선액(宣額)되어 첩시(疊施) 함은 부당하지만 일대유종(一代儒宗) 김장생을 경모하는 다사지청(多士之請)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허락하였다.

김장생의 광산김씨가 연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김장생의 8대조인 약채(若

采)가 조선초 연산에 정착하면서부터이고, 특히 그의 장자 문(問)의 후손들이 연산에 세거하면서 호서 명족으로 자리를 굳혀 갔다.

광산김씨가 호서 사림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한 것은 김장생의 조부인 호(鎬)에 들어서이며 아들인 계휘(繼輝)때 와서 완전한 호서 사족으로 자리 잡았고 이런 가문적 배경에서 김장생이라는 거유(巨儒)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 3. 인물 약전

###### 1)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조선 중기의 학자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대사헌 김계휘의 아들로 송익필과 이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예학에 정통하여 우리나라 예학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늦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하였고 과거를 거치지 않아 오직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의 영수로서 영향력이 매우 컸다. 향리인 연산에서 주로 학문과 교육으로 많은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하에서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윤선거 등 당대의 명사가 즐비하게 배출되었다.

저서로는 상례비요, 가례집람, 전례문답, 의례문해 등 예에 관한 것이 많고 근사록석의, 경서변의, 사계선생전서 등이 전하고 있다.

1688년(숙종14)에 문묘에 배향 되었으며 돈암서원 등 10여 개 서원에 배향 되고 있다.

###### 2) 김 집(金集 1574~1656)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로 본관은 광산, 자는 사강(士剛), 호는 신독재(愼獨齋),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사계 김장생의 차자로 서울에서 태어나고 18세 때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부친의 문하에서 오직 성리학과 예학에 몰두하였다.

1613년(광해5) 계축화옥에 서숙(庶叔)인 김경손 김평손 등이 연루됨에 따라 더욱 벼슬길을 포기

하고 아버지를 따라 연산으로 내려와 은둔하였다.

1623년(인조1)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게 되면서 도덕 정치가 강조되고 산림(山林)을 중용하는 정치 기풍이 진작 되었다. 이에 따라 김장생을 필두로 하여 산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김집 또한 학행으로 천거되어 조정에서는 그를 사헌부 헌관으로 부르 고자 하였으나 한사코 사양함으로 부여 지방관으로 처음 부임하였다가 부임한지 4년만에 신병으로 사임하고 이후 임피 현령에 제수 되는 등 여러 관

직이 주어졌으나 부친의 간병을 위하여 모두 사퇴하였으며 부친의 3년 상을 치른 후에야 지평 집의 등을 수행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그는 향리에서 의병을 모아 천안까지 올라 갔으나 인조가 이미 삼전도에 나아가 청 태종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해산하고 홀로 상경하여 진위(進慰)하고 돌아왔다.

효종 초에 공조참의를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을 때의 조정은 김자점을 축으로 하는 공서파(功西派)가 득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재야의 기풍을 가지고 중앙 정계에 진출한 청서파(淸西派) 계열의 산당(山黨)과는 정면으로 충돌되었다. 당시 김집은 청음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산당의 거수로 추앙되고 있었으나 대동법 시행을 둘러싸고 김육(金堉)과 불화가 일어나 관직을 버리고 연산으로 돌아왔다. 특히 김자점이 효종의 북벌계획을 청에 밀고한 일이 있은 후에는 더욱 정계 진출의 뜻을 잃었다. 그리고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특히 예서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여 김장생과 함께 조선 예학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 예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김집 사후 곳곳에 서원이 건립되고 문묘(文廟) 및 효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신독재 유고, 의례문해속이 있다.

###### 3)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로 본관은 은진이고,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 시호는 문정(文正)으로 이이와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24년 진사가 된 후 학행으로 천거받아 1630년 세마에 제수 되었 고

효종이 즉위할 때까지 내시교관 동몽교관 시직 대군사부 예안현감 형조좌랑 지평 한성부판관 등에 임명 되었으나 대부분 관직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1649년(인조27) 산당 김집이 이조판서가 되면서 송시열과 함께 발탁되어 부사직 진선 장령 집의에 올랐고 김자점 등 반정공신 일파를 탄핵하여 몰락시켰다.

1659년(효종10) 병조판서 지중추원사 우참찬으로 송시열과 함께 국정에 참여 하던 중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하면서 자의대비 복상문제로 예송이 일어나자 송시열의 기년제를 지지하여 남인파의 논란을 벌여 관철시켰다. 이해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곧 사퇴하였고 현종이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남인들의 거둬된 상소로 계속 사퇴하였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나 이듬해 자의대비 복상문제로 남인이 집권하면서 관직을 삭탈 당했고

1680년(숙종6)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관직이 복구되었다. 동춘당 송준길은 이이의 학설을 지지하였고 예학에 밝았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였다.

1756년(영조32) 문묘에 배향되고 돈암서원 외 8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어록해 동춘당집이 있다.

###### 4)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조선 후기 문신이고 학자로 본관은 은진이고,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송갑조의 아들로 김장생 김집으로부터 사사 받았다. 27세 때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1635년(인조13)에 봉림대군의 사부가 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는 일체의 관직을 사양하고 향리에 낙향하여 10여 년간 학문에 몰두 하던 중 1649년(인조27) 효종이 즉위하자 기용되어 북벌계획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후 송시열의 정치 생활은 북벌과 예송에 관련하여 부침(浮沈)을 계속하였다. 송시열은 조정에 나가기보다 향리에 은거한 기간이 대부분이었으나 서인의 거두로 혹은 노론의 영수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689년(숙종15)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하면서 유배와 사약을 받은 이후 송시열의 행적에 대하여는 당파간의 칭송과 비방이 무성하였다. 그러나 1716(숙종42) 병신처분과 1756년(영조32)의 문묘 배향으로 그의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은 공인되었고 영조 및 정조 대에 노론의 일당전체가 이루어 지면서 그의 역사적 지위는 더욱 견고하게 확립 되고 존중되었다.



▲ 응도당 (보물 제1569호)

송시열의 서원 배향은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자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청주의 화

양서원을 비롯 전국적으로 70여 개소에 이르고 사액서원 만도 37개소가 된다. 저서로는 주자대전차의 외 10여 종과 문집으로 우암집 송자대전 송서습유 석습유 등이 간행되었다.

##### 4. 건축물

###### 1) 사당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전면 열은 퇴칸이고 후면 2열은 내부공간으로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 네 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 2) 응도당

응도당은 강학 공간의 강당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내부는 모두 마루를 깔았다.

###### 3) 양성당

사당 바로 앞에 배치되어 있는 양성재는 거경재라고도 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에 홀처마이다. 이외에도 정의당 장판각 사마재 외삼문 묘문 수직사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은송가의 할머니들 이야기(2)>

은진송씨의 가문을 중흥시킨 증숙부인(贈淑夫人) 광산김씨(光山金氏) 9세 양근공(楊根公 : 汝霖) 선조님의 배(配)

영인(令人) 광산김씨(光山金氏)는 좌의정(左議政)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국광(國光)의 5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타고난 성품이 정숙하고 영특하였던 영인 김씨는 지체 높은 집안에서 부덕을 닦은 뒤 회덕 송촌에 세거하는 은진송씨 대종가의 종손 송여림(宋汝霖)에게 종부로 시집을 왔다. 남편 여림(汝霖)은 은진송씨의 증시조인 쌍청당(雙淸堂) 송유(宋儵)의 현손이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지낸 송계사(宋繼祀)의 손자이며,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지낸 송요년(宋遙年)의 2남 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나, 뒤에 양근군수(楊根郡守 : 현 경기도 양평군수)를 지낸 분이다. 조선 초기 좌의정을 지낸 진원군(晉原君) 강귀손(姜龜孫)은 바로 그의 매부가 된다.

영인 김씨는 능히 문자의 뜻을 알고 정숙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을 구비하여서 일가들이 모두 숙부인의 현철함을 칭찬하였다.

95세로 장수하시고 돌아가신 시할머니 공인 순천김씨와, 그 5년 뒤 돌아가신 시어머니 숙인 나주김씨를 모시는 층층시하(層層侍下)에 살면서도 불평 하나 없이 오히려 시할머니의 근면함과 시어머니의 정숙함을 본받아 은진송씨의 가풍을 이어가면서 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많은 재산을 소중히 보존하였다.

한편 아래로 시동생 남매와 3형제의 사촌 시동생과 영의정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에게 출가한 사촌 시누이 등을 거느리고 종가를 굳건히 지켜내면서 증부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영인김씨의 시할머니는 바로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 장군의 조카딸 공인(恭人) 순천김씨(順天金氏)이고 시어머니는 숙인(淑人) 나주김씨(羅州金氏)이었다.

영인 김씨는 타고난 체질이 강건한 데다가 부부간에도 금슬이 남달라 슬하에 아홉 형제를 두었는데 모두를 훌륭히 길러냄으로써 은진송씨의 중흥

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자제들을 보면 첫째는 안악군수(安岳郡守)를 지내고 사후에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증직(贈職)된 세훈(世勳)이고, 둘째는 경남 합천 삼가면 병목촌(陴川 三嘉面 並木村)에 터를 잡은 충순위공파(忠順衛公派)의 파조인 충순위(忠順衛) 세적(世勣)이며, 셋째는 진사공파(進士公派)의 파조인 진사(進士) 세감(世勘)이고, 넷째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세근(世勤)이며, 다섯째는 집의공파(執義公派)의 파조인 집의(執義) 세면(世勉)인데, 그녀의 현손 효정공사우당(孝貞公四友堂) 국택(國澤)의 사위가 낳은 딸이 현종의 비(妃) 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여섯째는 첨사공파(僉使公派)의 파조인 첨사(僉使) 세욱(世勳)이고, 일곱째는 청풍공파(淸風公派)의 파조인 청풍군수(淸風郡守) 세경(世勤)이며, 여덟째는 주부공(主簿公)파의 파조이자 시당숙인 주부(主簿) 미년(眉年)의 둘째 아들 여화(汝和)에게 양자를 간 승중(承重)이고, 아홉째는 자산공파(茲山公派)의 파조인 자산군수(慈山郡守) 세협(世協)이다.

이처럼 영인 광산김씨는 아들 아홉을 슬하에 두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대대로 번성하여 지금은 은진송씨 39개 파의 절반에 가까운 18개 파를 차지하고 있다. 그 아홉 아들들은 한결같이 효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고 대대로 빛나는 가풍을 이어왔기 때문에 후손들은 김씨부인을 은진송씨 가문을 중흥시킨 장한 어머니로 추앙하여 지금까지 정성껏 모시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 영인 김씨는 태어나신 해와 돌아가신 해를 알 수 없어 다만 6월 4일에 돌아가셨다고만 『은진송씨보』에 전하고 있다. 사후에 숙부인(淑夫人)으로 증직되었다. 묘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大田廣域市 東區 二沙洞) 건좌원(乾坐原)에 자리한 부군의 묘와 함께 있는데 다만 광(壙)이 다를 뿐이다.

(『은진송씨세적록』, 『은진송씨선적사』, 『은진송씨보』)



▲ 양근공 여림과 배위 광산김씨 묘역 (대전 동구 이사동)

홈페이지 주소 홍보

인터넷에서 은진송씨 대종회 ▼  
http://www.ejsong.co.kr

\* 종중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헌성금 및 장학금 납부자 명단 (2023.11.14~12.26)

◆ 대종회 발전성금		대전광역시	
삼기당공파종중	300,000	송봉헌 대전 동구 대청호수로	30,000
◆ 지평공 세일사 성금		송태호 대전 동구 용운동	30,000
송규식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300,000	송길남 대전 동구 비래서로	20,000
◆ 대종회 장학성금		송석찬 대전 동구 충무	20,000
송규식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500,000	송재건 대전 동구 동부로	20,000
송석근 대종회장	200,000	송현주 대전 중구 보문로	10,000
송민석 서울 양천구 신목로	200,000	송석도 대전 서구 괴정로	20,000
송인집 대전 중구 태평로	100,000	경기도	
◆ 고액 헌성금(연회비) 납부자		송인준 경기 포천시 이동면	20,000
송재웅 서울 서초구 효령로	100,000	강원도	
송기수 대전 서구 관저북로	100,000	송진호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20,000
송병대 대전 서구 원도안로	100,000	충청북도	
송용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	100,000	송상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20,000
◆ 개인 헌성금 납부자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송교현 경북 영주시 구성로	20,000
송성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000	주소미상	
부산광역시		송인협 12월 18일 하나은행	50,000
송성조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30,000	송재홍 12월 19일 하나은행	20,000

헌성금 협조 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원들께서 납부하신 헌성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원께서는 헌성금 협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성금 납부계좌 ]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협 : 351-1084-0817-03

기타안내

[ 지로 입금 시 ]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으로 입금 시 ]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종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종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종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원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는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간을 위하여 종원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 내용 :
  - 1) 각 파종중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 4) 각종 미담 사례 등
  -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종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o835@hanmail.net
- 연락처 : 전화 042-256-0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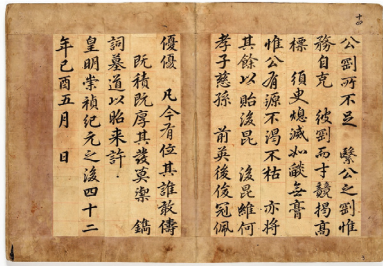
= 恩宋의 文化財 (22회) =

60. 송준길 서첩-민기묘표, 신도비명  
(宋浚吉 書帖-閔機 墓表 · 神道碑銘)

-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27호
- 분 류 : 기록유산/문서류/민간문서/기타류
- 수량/면적 : 1점
- 지 정 일 : 2018. 04. 30.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창릉대로265, 수원박물관
- 소 유 자 : 수원시

조선 현종 때의 정치가이자 대학자인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쓴 《민기묘표(閔機墓表)》 앞면과 《민기신도비(閔機神道碑)》의 원고다. 원고란 비석에 글자를 새기기 전에 먹으로 필사한 것으로, 비석 글씨의 원본이라 볼 수 있다. 이 원고는 글자나 글줄을 잘라 편집한 뒤 첩으로 꾸민 것이다. 《민기신도비》 원고에는 붉은색 방안선이 남겨져 있는데 비석에 새겨질 글자 배열과 간격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서도 송설체(松雪體)와 한석봉체(韓石峯體)를 토대로 안진경체(顔眞卿體)의 두터운 필획을 가미한 양송체(兩宋體)를 창안함으로써 조선시대 선비 글씨의 한 전형을 제시하였다.



▲ 송준길 서첩

동춘당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함께 울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이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과 신독재(慎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의 학통을 계승하여 평생 동안 학문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다. 서풍에

61. 강한사(江漢祠)

-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호
- 분 류 : 유적건조물/인물사건/인물기념/사우
- 수량/면적 : 1동
- 지 정 일 : 1972.05.04.
- 시 대 : 1785년(정조 9년)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13 (하동)
- 소 유 자 : 대\*\*\*



▲ 강한사 편액



▲ 대로서원 편액



▲ 대로사



▲ 추양재

‘강한사’는 조선 중기 학자이며 정치가인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년-1689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송시열은 생전에 좌의정까지 지낸 인물로 경기도 여주에 머물 때마다, 영릉(寧陵: 효종의 능)을 바라보며 효종의 북벌 정책에 대한 대의(大義)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후에 정조가 영릉에 행차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김양행(金亮行)에게 송시열의 사당을 짓게 하였고, 송시열을 높여 ‘대로(大老)’의 명칭을 붙여 사당을 ‘대로사(大老祠)’라 하였다.



▲ 강한사 전경

그 뒤 1873년 10월 고종에 의해 ‘강한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에는 대로사 또는 강한사라 불리고 있다. 사당은 고종의 서원철폐(書院撤廢: 1871년 전국의 47개소 서원(사우 포함)만 남기고 모두 없앴)에도 없어지지 않고 강한사로 개칭되어 남아있다.

강한사는 크게 사당과 강당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당의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의 크기이며,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강당의 규모는 정면 5칸, 옆면 3칸의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실인 추양재(秋陽齋), 대로사비각(大老祠碑閣),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한사의 사당은 특이하게도 서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영릉을 바라보기 위한 것으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보여 주는 것이라 전하고 있다.

62. 대로사비

-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4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수량/면적 : 1기
- 지 정 일 : 1979.09.03.
- 시 대 : 1787(정조 11년)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113 (하동)
- 소 유 자 : 대\*\*\*



▲ 대로사 비각

조선 숙종 때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제향(祭享)하기 위해 1785년(정조 9) 경기도 여주(驪州) 강변에 지은 대로사(大老祠)의 내력을 기록한 비이다. ‘대로(大老)’란 정조가 지어준 송시열의 존칭이다.

정조는 송시열이 태어난 후 3번째 맞는 회갑년(1787)에 그를 기리기 위해 총 높이 약 390cm에 이르는 장대한 규모의 대로사비를 건립하였다. 비신(碑身: 글씨를 새기는 부분)의 앞면 중앙에 전서(篆書)로 ‘대로祠碑(대로사비)’라고 크게 쓴 후 비신의 좌측면, 뒷면, 우측면에 해서(楷書)로 비문을 썼다. 비신 앞면의 우측 상단에 작은 전서로 ‘御製御筆(어제어필)’이라고 써서 정조가 친히 비문을 짓고 글씨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전서는 장엄하고 해서는 유려하여 정조가 쓴 어필비(御筆碑)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글씨를 새긴 홈에는 아직도 빨간 색

의 주칠(朱漆)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각형 받침돌에 비신을 세우고 지붕돌을 얹은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을 갖추고 있다.



▲ 대로사 비